

11. 금필이 귀양을 가다

931년 겨울, 송악도성 남대문을 나와 서해 조강나루로 가는 길우로 세명의 일행이 걷고있었다.

앞에서 걷는이는 기필이 장대했다. 그는 머리를 곧추 든채 찬바람을 맞받아 씨엉씨엉 걸었다. 뒤를 따르는 두명의 군사들은 웬 일인지 온몸을 움송그린채 맥이 빠진 걸음이었다. 앞선이의 옷주체가 람루하지만 앉았다면 뒤따르는 두 군사가 앞선이를 호송해가는줄을 가려보기 어려울것이었다.

《나으리! 추우실텐데 이 덧저고리를 걸치시오이다.》

뒤의 군사 하나가 보짐을 헐어 옷가지 하나를 덧씩워주려고 하였다.

《그만뉘라. 나는 귀양을 가는 죄인이다. 죄인에게 무슨 인정이란 말이냐?》

앞선이가 거절하였다.

《인정이 아니오라... 들고 가느니 입고 가시는편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느냐. 죄인은 죄인으로 대하는것이 법을 받드는 자세이니라.》

앞선이는 한사코 거절하며 그저 묵묵히 걸어갈뿐이었다.

자기를 죄인이라 칭하는 사람은 바로 대광 유금필이었다. 그는 지금 곡도(백령도)로 귀양을 가는 길이었다.

귀양길에 나선 금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예로부터 충신이 있는 곳엔 간신도 있는 법이라지만 정작 제가 당하고보니 그 심정이 이루 억울하기 그지없었다.

한달전의 일이었다.

어느날 저녁 금필은 갑자기 어전으로 왕건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대가 신라왕과 더불어 나를 모함하자고 한것이 사실이뇨?》

느닷없이 들이대는 왕건의 물음에 금필은 와뜰 놀랐다.

《제가 폐하를 모함하려 하다니요? 신라왕과 함께 모함하려 하였다는건 또 무슨 말씀이오이까?》

금필은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다.

(아닌밤중에 흥두깨라더니 이런 변을 보았나?)

금필이 미처 정신차릴 사이도 없이 왕건은 다시금 내쏘았다.

《여기 문서장이 있는데도 모르셨가?》

두툼한 봉서 하나가 금필의 발치에 떨어졌다.

《다긋지만 마시고 자초지종 말씀해주시오이다, 폐하!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것이옵니까?》

《그 문서장을 읽어보면 알것 아닌가?》

왕건이 차갑게 내뱉었다.

《나는 이런건 보지를 않겠소이다. 지금 날더러 모반이라 하지 않으셨소이까?》

《그대가 전해에 서라벌에 들어갔을 때 신라왕과 더불어 천하를 도모하자고 언약하였다며?》

《그러하오이다.》

금필은 지난해 경순왕을 만나 주고받은 말을 인차 상기하였다.

《그것이 잘한것이란 말이뇨?》

《신라는 조만간 고려에 들어올것이로되 고려와 신라가 합쳐질것이라 말한것이 잘못이란것이오이까?》

《그대가 천하를 도모하려다 한게 잘한것인가?》

《네에? ...》

금필은 말문이 막혔다.

눈앞이 아찔했다. 누군가가 말꼬리를 물고늘어진것이였다.

생트집이 분명하였지만 말뜻을 따지고보면 해석하는데로 번져지기 십상이였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것이다.

금필은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폐하, 나는 천하를 도모하려는 사람이오이다. 그 천하는 내것이

아니오라 폐하의것이로소이다. 그 말뜻을 그래 폐하가 모르신단 말이오이까?》

금필은 부르짖었다.

《대답을 주시오이다. 정녕 모르시오이까?》

이번엔 왕건의 말문이 막혔다.

《하오면 신라조정에서 짜놓은 이 각료분배안은 무엇이뇨?》

왕건이 손가락으로 봉서를 가리켰다.

《신라가 각료직을 짜고있는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오이까? 그거야 그네들이 제 할 일을 하는것이 아니오이까?》

이번에도 왕건은 말을 못했다.

한참만에야 왕건이 변명조로 나왔다.

《간자들의 보고가 그렇게 되어있다. 그들의 진의는 다시 따져볼테지만 여하튼 그대는 큰 실수를 하였다.》

《명심해서 처신하겠소이다.》

《됐다. 돌아가보라.》

왕건은 차겁게 내뺄고 일어섰다.

《아니, 가지 못하겠소이다.》

금필은 엎드린채 부르짖었다. 억울하기 그지없었던것이다.

형님을 만나 이날이때까지 이렇듯 차겁게 나를 대한적이 언제 있었단가. 형님이 어찌하여 저렇게 되셨는가?! ...

금필은 금시 눈물이 쏟아져나왔다.

《돌아가라고 하지 않느냐!》

《아니 가겠소이다. 나한테 술 한방구리 내려주소이다. 그냥은 돌아가지 못하겠소이다!》

《이 사람이?! ...》

왕건이 주춤거렸다.

《왕후마마! 어디 계시오이까! 소인에게 술을 내려주소서, 왕후마마!》

격해진 금필은 자리에 없는 왕후를 찾아 불렀다. 지금의 억울한 이

심정을 신혜왕후만은 알아주리라 싶어서였다.

《침전에 든 왕후를 여기서 찾으려면 어쩐다는거냐? 그만 진정하라. 내가 잘못하였다.》

왕건은 그만에야 금필에게 사죄를 하고 나섰다. 그제야 자기가 지나쳤다는것을 깨달은것이였다.

이날 금필은 대성통곡하였다.

왕건은 정말로 신혜왕후를 찾아 침전으로 금필을 데리고 들어갔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 시각 신혜왕후는 장화왕후에게 가있었던것이다.

금필은 불러온 궁녀를 돌려보내고 제손으로 술을 부어 마시고 크게 취하여 왕건의 침전에서 뿔아떨어지고말았다.

그런 일이 있는 후로 금필의 얼굴엔 웃음기가 가뭇없이 사라졌다.

그는 전후사연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틀림없이 후백제의 리간계일것이였다. 어느 간신의 작간인지도 몰랐다.

그로부터 며칠후에 금필은 또 한번 봉변을 당하였다. 누군가가 금필이 후백제의 첩자를 끼고 산다고 상주한때문이었다. 금필의 부인 림씨가 후백제의 첩자라는것이였다.

금필은 다시금 분노를 터뜨렸다. 림씨가 부여성인것은 사실이나 후백제의 관할하에서 살았다고 다 후백제첩자인가?

그것도 후백제의 첩자들이 꾸민 모략이였다는것이 인차 드러나기는 하였지만 금필에게는 여간 타격이 아니였다.

다른 일에서라면 몰라도 금필은 자기를 지키는데는 약하였다. 천성이 고지식한 그는 자기를 다잡는데 많은 시일이 걸렸다. 남을 모함해 본적이 없는 그는 정작 제가 모함을 당하자 평소의 여유를 잃고 절절했다. 금필은 이 점에서 누구보다 약했던것이다.

금필은 오랜만에 지나온 나날을 떠올려보았다. 세월의 갈피를 슬쩍슬쩍 뒤져보느라니 자기도 적지 않게 남을 골려주었다는데 생각이 미치였다. 물론 그것은 적축에 대해서뿐이였다. 그제야 금필은 머리를 끄덕였다. 골탕을 먹은 적축에서 언제든 보복을 해오리란걸 알아차렸던것이다.

금필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적을 끌리는것은 모함이 아닌것이다. 모함이란 죄없는 자기편 사람을 끌탕먹이는것을 말하는것이다.

금필은 자기편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지는 않을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이 금필의 잘못이었다. 이번에 금필은 자기편 사람들로부터 진짜 모함을 당한것이었다.

바람 한점 없는 날씨였다.

송악도성을 떠나올 때와는 달리 바다는 잔잔했다. 물때를 맞춰 떠난 배는 조용히 수면을 가르며 떠나고있었다.

한마리의 갈매기가 배전을 외롭게 감돌았다.

금필은 아득히 멀어져가는 룩지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섰다.

배를 타본지도 오래되었다. 금필은 자기가 라주로 나들던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것을 상기했다.

그간에만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던가.

고려를 일떠세우고 북방을 넓혔다. 남쪽도 초기보다 많이 넓혔으며 신라를 끌어당기는데도 거의 성공했다. 후백제와의 마지막 한판승부를 가르면 그 다음엔 통일인것이다.

많은 일을 하였구나! 참으로 멀리도 달려왔도다!

가슴이 찢릿해왔다. 그만하면 괜찮은 인생행로였다. 사나이로 세상에 나서 그만한 일을 하였다는것은...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금필은 분발하고있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다니...

금필은 다시금 한숨을 내쉬었다. 자기가 당한 모함이 통분하기 그지없었던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금필은 식렴이 자기를 시기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잡쳐지는 그 일은 금필이 왕건을 따라 평양성을 순행했던 지난해 봄에 벌어졌었다.

발해유민들을 안착시키는 일은 예상외로 잘되어갔다. 그간 해서일

대의 많은 주민들을 이주시켜 평양성의 인구는 대폭 늘어났으며 도성도 옛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구려도읍의 위세를 되살리었다. 왕건의 말대로 고려의 제2의 수도로서 나무랄데가 없었다.

왕건은 만족을 금치 못해 식렴을 치하였다.

그런데 식렴이 생각밖에 고려국의 평양천도를 독촉해나섰다. 그간 10년을 틀고앉아 해놓을것은 다해놓았으니 수도를 즉시 옮기자는 것이었다.

왕건은 이를 만류하며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세나라를 통일한 다음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자칫하다간 불필요한 소모로 국력이 기울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더없이 나무랄데 없는 옳바른 리치가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식렴은 여전히 고집했다.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인것만큼 응당히 수도도 고구려의 수도를 택해야 한다고 하면서 먼저 수도를 평양으로 정하고 통일된 이후에 곧바로 이곳에서 통일국의 정사를 펴나가는데가 순서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소리였다. 어쨌거나 고려가 앞으로 수도를 평양으로 하자는것은 왕건의 결심이자 금필과 그 형제들 그리고 고려조정의 대다수 고구려출신관료들의 견해였다. 세나라통일이후에 수도를 옮기자는데 차이가 있을뿐이었다.

당장은 통일을 우선시해야 하였다. 국력을 깡그리 모아서 후백제를 타승하는데로 집중해야 하였다. 평양천도에 마음쓰면서 국력을 분산시키다가는 아차하면 돌이킬수 없는 화를 입을수도 있었다.

금필은 왕건의 이러한 뜻을 알기에 왕건의 편을 들었었다.

이것이 식렴의 노여움을 살줄이야. ...

폐하의 총애를 혼자서 독차지하더니 나를 내려다보는구나. 듣던바 그대로 금필은 교만해지였구나.

식렴은 금필을 한번 놀려놔야겠다고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아닌게아니라 이때에 이르러 조정의 일은 금필의 입놀림에 적지 않게 좌우되고있었다.

왕건은 나라의 대소사를 금필과 즐겨 논의했다.

판료등용에 한해서만은 최응과 최지몽이 주로 다루었는데 때없이 왕건과 자리를 같이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금필도 그 일에 적잖게 관여하게 되었다. 물론 금필자신이 주도적으로 참네한것은 아니었다.

왕건이 이들과 함께 있을 때 금필의 의향을 스스럼없이 묻곤 하여 소견을 아뢴것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례가 많아진것이였다.

조정외 판료대신들, 지방의 호족들이 금필의 눈에 들기 위해 애를 쓰기 시작했다. 금필이 고정하고 사리사욕을 모르므로 아첨군들은 뒤에서 비평을 많이 했다. 목적인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체로 금필을 욕하였다.

평양성에 앉아있는 식렴의 귀에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왔다.

그것을 끝이끝대로 들은바는 아니였으나 금필의 세줄이 너무 불리여졌다고까지는 생각하고있은 식렴이였다.

아닐세라 오늘 보니 그것이 빈말은 아니였구나. 나 같은건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는구나. 되지 않겠는걸! 고려조정에 나를 몰라보는 사람이 있다니...

식렴은 금필을 가로보기 시작했다.

식렴의 이런 마음속 변화를 껌싸게 눈치챈 사람이 있었다. 왕건의 장인이 되는 중원경호족 우두머리 류공달이였다.

류공달은 일찌기 자기의 딸을 왕건에게 섬기여 셋째부인(신명왕후)으로 삼게 하였었다.

그즈음에 왕건은 주로 신명왕후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그에게서 아들을 넷이나 보았던것이다. 왕자를 넷씩이나 낳은 신명왕후의 코대는 여간 높지 않았다. 그는 장화왕후를 뛰어넘어 제가 낳은 왕자중의 맏이를 태자로 삼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중원경세력이 있었다. 꼭 짚어 말하면 신명왕후의 아버지 류공달이였다.

술희는 물론 금필도 이를 결사반대했다. 맏이를 넘어서서 둘째가 태자로 된다는것은 상례를 깨는 일로서 특별한 리유도 없이 뛰어넘는

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기때문이었다.

모사들인 최응과 최지몽도, 궁성호위장인 복지겸도 금필과 견해가 일치했다. 홍유와 배현경은 금필의 세불림에 은근히 심사가 뒤틀려 있던지라 리치는 어찌되었든 금필의 견해를 비틀고 나왔어 침묵하고 있었다.

신명왕후가 무진 애를 썼지만 태자책봉은 장화왕후의 소생인 맏이 무에게로 정해졌다.

중원경세력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금필의 작간이라고 단정하고 유금필을 제거하자는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원경세력과 인연이 깊은 식렴이(식렴은 소시적에 왕건의 부친 룡건이 장사거래를 할 때마다 즐겨 데리고 다니었는데 그때 룡건과 가까웠던 중원경호족들과 일찍부터 인맥을 맺고있었다.) 이를 암암리에 밀어주었다.

중원경세력은 달라붙어 금필의 흠을 캐기 시작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드디어 금필에게 혐태기가 씌워지기 시작했다.

임금의 총애를 악용하여 제왕행세를 하고있다는 참소도 들어왔다.

전국초기 동북방개척때 임금의 허가없이 녀진족의 귀화를 받아들였다는것이 첫 죄목이었다. 그것은 왕건이 전권을 주었으므로 문제삼을것이 아니라 이미 선을 그어준것인데도 시일이 지나니 또다시 문제거리로 되고있었다.

왕건은 그때위 입씨름은 걸어치우라고 잘라버렸지만 참소군들은 검질기게 달라붙었다. 이번엔 왕명을 흥정한 죄목을 들고나왔다. 어느헛간 금필이 왕건과 함께 평양성에 가서 식렴을 도와 서북방안정에 전력을 기울이던 그때 문화현의 류달을 엄하게 다스리라 하였는데 류달의 형벌을 제지시킴으로써 왕명을 심히 거역하였다는것이였다. 왕의 어명을 흥정하고 거역한 신하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목에 피대를 돈구었다.

금필이 왕명을 거역하였다고 들고나온 또 한가지 죄목이 있는데 그

것도 듣고보면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어느해인가 왕건과 함께 평양성을 순찰하고 돌아오는 길에서였다. 다지홀을 지나 우봉 옷쪽 토산지경에 들어선 일행이 길가에서 잠시 다리쉬를 하고있는데 길옆 골안에서 범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느라니 분명 범들이 맞붙어돌아가며 싸우는 소리였다.

쌍붙는 철도 아닌데 웬 다툼질일가? ... 금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왕건이 불쑥 일어섰다. 그리고는 《범이로구나! ... 한번 몸을 놀려볼가.》 하며 호위군사에게 손을 내밀었다. 활을 달라는 것이었다.

금필은 얼핏 범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골안을 살펴보았다. 장관 목이 우거진 골안은 오리는 실히 되어보였는데 골안이 끝나는데서부터는 벼랑이 들쭉날쭉한 산자락으로 둘러막혀있었다. 골안에서 살질로 범을 맞히면 그만이지만 빗맞히는 경우 범이 달아나면 그땐 난사였다. 범이란 놈은 나무숲에서보다 바위벼랑우에서 몸놀림이 더 날래다. 사람은 바위벼랑우에선 일단 말에서 내려야 하므로 범과 일대일로 맞붙어 접전을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역습을 당하기 쉽다. 그런대로 살질이나 칼질을 할수는 있으나 거기서도 놓치면 산밭을 타고 뛰는 범을 잡기가 힘들것이다. 차라리 범이 마주 덤벼들면 좋겠지만 이쪽의 사람수가 많은것을 알면 범은 뛰는쪽을 택할것이 뻔하다. 내 뛰는 범을 잡겠다고 세월없이 따라갈수도 없는 일이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잡기가 힘든때문이다. 범은 낮보다 밤에 더 먹이사냥을 즐기는 짐승이다. 고양이보다 더 밤눈이 밝은것이 범인것이다. 하루밤에 이백리까지는 멈추지 않고 달아빠는 범을 무슨 수로 따라잡는단 말인가. 지형도 잘 모르는 깊은 산중에서 자칫하단 무슨 화를 당할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범을 잡기는 고사하고 되려 먹히울수 있었다. 제지시켜야 했다.

《폐하! 로독이 쌓여있는 몸인데... 그만두시는게 좋겠소이다.》

금필이 만류했으나 왕건은 막무가내였다.

《동생은 별걱정을 다하오. 로독을 푸는셈 치고 얼핏 달려보세나.》

하며 번개같이 말우에 오르더니 고삐를 채며 내달리기 시작했다.

다급해난 금필은 허둥지둥 왕건을 뒤따랐다.

얼마쯤 달리던 금필은 서로 엉켜붙어 돌아가는 두마리의 수범을 발견하게 되었다. 범들은 보통 오륙십리안팎을 지경으로 해서 자기들의 령지를 차지하고 살았다. 자기 령지안에 다른 놈이 들어오면 죽기로 싸워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쫓겨나야 하였다. 그래서 수범들은 자기 령지를 지키기 위해 또 빼앗기 위해 죽기로 싸우는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싸움이 붙은 범을 잡기가 쉬울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독이 오른 범들의 싸움에 휘방을 노는자가 있으면 그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죽쳐대기가 일쑤였던것이다. 저들의 싸움은 일단 접어두고 힘을 모아 휘방군부터 치고보는것이였다. 그걸 당해내기가 쉽지 않은것이다.

금필은 범잡는데는 귀신이란 소리를 듣는 경험자이며 이런 경우도 적잖게 맞다들려보았는데 결코 좋은 결실을 바라기 힘든 상황이였다.

《폐하! 위험하오이다.》

금필은 소리쳤다. 그러나 왕건은 코웃음을 쳤다.

《동생은 왼쪽놈을 말으라! 짐은 오른쪽놈을 말올테니...》 하고는 무서운 속력으로 말을 몰아나가며 활질을 단념하고 칼을 뽑아들었다.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전장도 아닌 곳에서 맹랑하게 폐하를 상하게 해서는 먼목이 서지 않는다.

다급해난 금필은 왕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움해 무작정 왕건을 앞질러 싸우는 범들속으로 달려들어갔다. 범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헤집어놓고보자는 생각에서였다.

《이 사람아! 왜 짐앞을 막는거냐? 동생은 왼쪽놈만 잡으라 하지 않았는가!》

왕건은 금필이 제나름으로 노는데 화가 나서 고함쳤다.

그러거나말거나 금필은 두놈의 가운데를 꿰지르며 내닫는 속에 번개같이 두팔을 휘둘러 량쪽의 범들을 내리찍었다.

왼쪽놈은 대가리는 뒤로 젖혔으나 코수염이 몽텅 잘리워나갔다. 잘

리운 코수염가시들이 솔잎처럼 훑날렸다. 오른쪽놈은 휘두르던 왼쪽 앞발통이 칼날에 떨어져나갔다. 놈은 따웅 소리와 함께 공중걸이로 뛰어오르더니 뒤로 획 돌아섰다.

금필이 얼마나 급속도로 공격을 들이대었는지 범들은 대번에 기가 꺾여 줄행랑을 놓았다. 코수염을 잘린 놈은 산마루를 바라고 정신없이 치달아올랐다. 반대로 앞발통을 잘리운 놈은 천방지축 골안밖으로 내뒤펀다. 이웃에서 침입해왔던 놈같았다.

금필은 혼잡속에서도 왕건이 범을 잡지 못하면 그냥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앞섰다. 누구보다 승벽이 강한 왕건이었다. 그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서는것을 보여줄수는 없는것이다. 하다면... 금필은 골안밖으로 내빼는 범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왕건이 제손으로 잡도록 해야 했다. 금필은 번개같이 말을 달려 범을 옆으로 우회하여 몰아갔다. 앞발 하나를 상한 범은 속도가 뚝뚝 떨어졌다. 금필이 앞을 막아나서자 놈은 방향을 옆으로 꺾었다. 금필은 혼신의 힘을 다해 범을 왕건이 있는쪽으로 몰아갔다.

《저놈 잡아라!》

호위군사들이 소리치는 속에 왕건은 마주 달려오는 범을 막아섰다. 한칼에 범의 목을 올리질렀다.

따웅 하는 피성과 함께 범은 목에 같이 박힌채로 왕건의 머리우를 날아 쿵하고 풀숲에 처박혀 뒹굴었다.

《잡았다!》

호위군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범을 둘러쌌다.

범은 아직 숨이 끊기지 않은채로 검붉은 피를 분수처럼 내뿜고있었다. 군사 하나가 투구를 벗어 내쏘는 피를 받았다.

《폐하! 다친덴 없소이까?》

금필은 황급히 왕건에게로 달려가 그의 온몸을 눈더듬하였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안도의 숨을 후 내쉬었다.

《십년감수로소이다. 하마트면...》

《동생에겐 이 짐이 코흘리개로 보이는가?》

《예?》

금필은 꿈쩍 놀라 왕건을 쳐다보았다. 노기가 잔뜩 서린 왕건이 두눈을 부릅뜬채 금필이 자기를 쏘아보고있었다.

《폐하!》

금필은 왕건이 선손을 떼운것이 분해서 그러는것을 알아차렸다.

《평지에서 범을 잡는거야 누군들 못하겠는가. 짐이 오늘 저 벼랑 턱쯤에서 범과 한번 붙어보려 했는데… 자네가 휘방놀지 않았는가!》

가쁜숨을 쉼씩 내쉬며 왕건은 이렇게 내뱉고는 획 돌아섰다.

《폐하! 정말 죄스럽게 되었소이다. 어망결에 그만… 폐하가 해를 입을가보아… 벌을 내려주소이다!》

금필은 왕건이 기분을 잡쳐하자 그만 기가 폭 꺾이고말았다. 엉거 주춤 서있던 금필은 군사가 내여미는 투구를 받아들고 황망히 왕건에게 다가가 다시금 사죄하였다.

《폐하! 그만 고정하소서… 저… 식기 전에 이 피를…》

금필은 왕건에게 범의 피가 가득 담긴 투구를 정히 들어올렸다.

《그대나 마셔라! 범이야 그대가 잡은게 아닌가!》

왕건은 성이 풀리지 않는지 손을 획 내저었다.

《그만 돌아가자!》

왕건은 풀대를 지르밟으며 련이 서있는 길쪽으로 말도 타지 않은채 발길을 돌려버렸다. 돌아오는 길에서도 왕건은 금필에게 선손을 떼운것이 분해 몇번이고 아쉬움을 곱씹었다. 금필은 그날 온 하루를 속이 한줌만해있었다.

(일도 참… 폐하의 안전을 위한다는노릇이 그만 기분만 잡쳐드렸구나.)

금필은 후회막심했다. 그러나 인차 마음을 다잡았다. 살다보면 열성이 되려 말썽이 되는 때도 있는 법이다. 아무됐거나 폐하가 무사하니 되었다. 폐하만 안녕하면 그만이다. 나 같은게 미움을 좀 받는거야 뭘 하나. 금필은 속으로 이렇게 자기를 위안했다.

왕건도 송악에 들어가서는 성이 풀려 저녁을 함께 하며 즐거이 담

소도 하고 정사이야기도 나누다가 헤어졌었다.

그런데 그날 있던 일이 왕명을 거역한 죄목으로 불거져나온 것이었다. 폐하가 잡으라는 범은 잡지 않고 폐하가 잡으려는 범을 가로채 잡으려 한것은 분명코 왕명을 거역한 죄라는 것이었다.

왕건은 짜증을 내며 돌아앉아 버렸다. 그렇잖아도 장화왕후가 라주를 되찾아달라, 아버지를 살려달라 하며 갑옷에 투구까지 쓰고 나서서 궁성안을 소란케 하는통에 신하들앞에 먼구스럽기 짝이 없는 왕건이었다. 거기에 금필의 버릇까지 잘못 가르쳤다며 들쭉시는 참소질에 화가 동한 것이었다.

금필이 이 사람이 확실히 처신을 바로 못하누나. 왕건은 저도 모르게 금필을 고까웁게 생각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불미스런 죄목이 덧붙여졌다.

왕건에게는 신명왕후와의 사이에 난 딸이 있었다. 후에 고려에 투항해온 신라왕 김부의 안해가 된 락랑공주였다.

금필은 이 락랑공주를 남달리 귀여워했다. 그가 자기의 딸과 친하게 지내는데도 있었겠지만 공주가 금필을 남달리 따랐기 때문이었다. 제 어머니 신명왕후가 죽도록 미워한 사람인 금필에게 그 딸은 반대로 죽기로 따랐다는것은 정말이지 괴이쩍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 락랑공주를 금필이 희롱했다는 것이었다.

락랑공주가 열두어살 되는 해이니까 오륙년전쯤 되는 해에 있던 일이었다.

그해 여름 어느날 금필은 왕건과 함께 수군을 시찰한적이 있었다. 그날 왕건을 따라 바다구경을 나왔던 어린 공주는 지는해를 바라보며 여간 황홀해하지 않았다.

분홍빛노을이 타는 속에 쟁반같은 황금빛저녁해가 서서히 바다물속으로 스며드는 광경이었다.

해를 받아들이는 바다수면은 일렁이는 물결로 해서 마치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쇠물가마처럼 보이였다. 어찌 보면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금시 뜨는 것 같았다.

공주는 해가 물속으로 사라지자 여간만 아쉬워하지 않았다.

《아바마마, 솟는 해를 볼수는 없나이까? 전 솟는 해가 무척 보고싶나이다.》

공주가 왕건에게 졸랐다.

《솟는 해를 보고싶으면 래일 아침 송악 만월대우에 올라가 보려 무나.》

《누가 산에 떠오르는 해를 보고싶다이까? 바다우에 솟는 해를 보게 해주소이다.》

공주는 막무가내로 졸랐다.

《바다우에 솟는 해야 여기서 볼수 있나? 동해에 가야 보지. 이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데리고 가마.》

왕건은 공주를 얼리였다.

《언제 데려가겠나이까? 빨리 보고싶소이다, 네? 아바마마!》

공주가 너무도 간절하게 졸라대자 왕건은 그만 손을 획 내저었다.

《넌 내가 정사는 걸어치우고 너 해구경이나 시키러 다니란 말이냐? 원, 철도 없구나.》

왕건이 책망하자 공주는 금시 울상이 되었다.

《폐하, 제가 이앞의 섬들을 돌아보는겸 공주님을 모시고 나가보겠소이다. 저 연평도쯤에 나가면 뜨는 해와 지는해를 앉은자리에서 볼수가 있을것이로소이다.》

금필은 공주가 너무도 소원하는 모양이 미안스러워 금시 궁냥한것을 아뢰였다.

《거기 가면 다 볼수 있을까?! ...》

잠시 기웃하던 왕건이 응수했다.

《그럼 래일 새벽에 같이 떠나도록 하라.》

다음날 새벽, 일행을 태운 당두리선은 연평도로 떠나갔다.

그런데 막상 섬에 오르고보니 동쪽하늘엔 구름이 끼고 안개까지 자욱했다. 일행은 구름과 안개가 가셔지기를 기다리며 잠시 휴식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안개가 가셔졌다. 이윽고 구름마저 갈가

리 흠어지며 동녘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미구에 아침해가 빠끔히 끝 머리를 드러냈다.

모두가 환성을 울리며 솟는 해를 바라볼 때 금필은 주위를 둘러 보았다.

그런데 공주가 보이지 않았다.

금필은 급히 배에 올라 공주를 찾았다.

어느새 다시 들어가 누운 공주는 세상모르게 자고있었다. 금필은 앞뒤 가릴새없이 침상에 누워있는 공주를 흔들어깨웠다.

그런데도 공주는 잠에 취해 눈도 뜨려 하지 않았다. 다급해난 금 필은 공주의 코를 꼭 쥐었다 놓았다.

그제야 공주는 눈을 떴다.

《공주아씨! 해가 솟고있소이다. 어서 일어나시오이다.》

《해가 솟는다구?! 으응... 나 좀...》

공주는 두손만 내민채 일어날념을 안했다. 잠이 덜 깬것이였다.

급해난 금필은 공주를 버쩍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자, 어서 보시오이다. 아침해가 솟고있소이다.》

금필은 공주를 안은채 해솟는쪽으로 몸을 돌려주었다.

《야! 아침해! ...》

그제야 공주는 두눈을 반짝 뜨고 환성을 올렸다.

금필이 내려놓으려 하자 공주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더 바싹 금필의 품에 안겨들었다. 공주는 금필의 목을 꼭 그리안은채 떠오르는 해를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금필은 공주가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니 기분이 등 떠서 연방 공주를 취울리며 한바퀴 빙그르르 돌기까지 하였다.

왕건도 공주가 기뻐하는 모양을 보며 흐뭇해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었다.

일은 그렇게 된것이였다.

그런데 그것이 공주를 희롱한것으로 뒤번져지고있었다.

왕건도 그때 일을 목격한지라 별일 아닌것으로 잘라버렸다.

그러나 참소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떻게 신하가 감히 공주를 안아들고 휘두를수 있는가 하는것이였다. 무엄해도 분수가 있지 이견 도저히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것이였다. 임금의 권위를 무시한 이 행동은 군신간의 례의를 어긴것으로서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우기였다.

왕건은 그만 얼굴을 찌프리고말았다.

왕족의 위엄을 손상시켰다는 주장에 손을 들고만졌이였다.

일단 왕건이 주춤하자 죄목은 한계가 없이 부풀어 견책으로 금땀일이 아닌것으로 결론이 났다. 왕의 권위를 손상시킨 그 죄는 죽어마땅하다는데로 의견이 모아지였다.

최응과 최지몽이 금필을 만나 사연을 알아본 후에 왕건에게 상주했다. 최소한 귀양살이는 시켜야 할것이라는것이였다. 금필을 일시 궁성밖으로 내치여 여론을 녹잡히자는 뜻이였다.

왕건은 금필을 칩전으로 불러들이였다.

금필은 지몽이 주는 조언을 미리 받은터라 흔연히 받아들였다.

《폐하, 폐하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참아낼수 있나이다. 너무 상심마옵소서.》

《조정의 분위기가 하나같으니 어찌겠나. 그간 동생을 부리기만 한것이 죄스럽던터이니 잠시 쉬도록 하게.》

《알아들었사오이다. 신은 그저 민망스럽고 송구한 마음뿐이오이다. 나때문에 너무 마음쓰지 마옵소서.》

《고맙네.》

왕건은 금필의 손을 잡아끌었다.

《짐과 함께 술이나 실컷 마셔보세.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며칠 지나 떠나도록 하게.》

《신은 래일 아침 떠나겠나이다. 폐하 신상에 다시는 그늘이 지지않게 하겠나이다.》

금필은 이날 밤을 왕건과 같이 쉬였다.

다음날 아침, 그는 집에도 들리지 않고 귀양길에 올랐다.

금필은 왕명을 받으면 그 즉시로 떠나곤 하였었다. 집에 들러본적이 단 한번도 없는 사람이였다.

이번 귀양길도 같았다.

그는 궁성을 나서는길로 관복을 벗어 내복성에 맡기고 하인의 허름한 옷을 빼앗다싶이 한벌 달래입고 혼연히 대궐을 나섰다.

부인 림씨도, 자식들도 구태여 바래주려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금필이 궁한 모습을 보이는것을 제일 싫어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던 것이다. ...

물에서 어지간히 떨어져있는 곡도는 외롭고도 한적했다.

바다구경도 하루이틀이였다.

금필은 울적한 마음을 달랠길 없어 섬기슭의 높다란 바위우로 올라갔다. 파도소리만이 간간이 들려올뿐 사위는 고요했다.

금필은 눈을 들어 멀리 남쪽 한끝을 응시했다.

왕건과 더불어 라주를 타고왔던 싸움의 나날들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금필의 마음 한구석이 아프게 찢려왔다. 라주를 빼앗긴 사실이 생각키웠던것이다.

어떻게 차지한 땅이었는데 그걸 빼앗기다니...

한시바빠 되찾아야 할 땅이였다. 라주는 물론 후백제전체를 하루 빨리 정복해야 하였다. 지금쯤 땅으로, 바다로 한창 전장을 누벼야 할 몸이 외지에 갇힌 몸이 되었으니 금필은 자기 신세가 비통하기 그지없었다.

(내가 권력에 환장을 했다구? ... 임금과 나란히 권세를 누리려 했다구? ...)

조정의 각료대신모두가 금필을 그렇게 보고있다고 했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는 험담이였다.

금필은 가슴이 답답해났다.

조정의 각료대신모두가 그렇게 본다는것은 보랜것이라 하더라도 열명중에 단 한명이라도 그것이 모함이라고 폐하께 말해주는 사람이 그

렇게도 없단 말인가.

조정이 지금처럼 허위와 기만이 목과되고 조장된다면 나라정사가 장차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질는지 모를 일이었다.

금필은 술희마저 패씹하게 생각되었다.

서경의 왕식렴이 금필형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것 같으니 조심하라고 귀띔한것이 술희였다. 식렴이 나를 편협하게 생각하는것을 알았으면 폐하께 진언을 해주야 할게 아닌가?! 금필은 애꿎은 술희에게 눈먼 욕을 하였다.

금필은 갑자기 승겸이 그리워졌다.

그가 살아있었다라면 결코 가만있지 않았을것이었다.

금필은 승겸과 함께 왕건을 따라 사냥길에 올랐던 이전의 일이 떠올랐다. 서경순찰을 마치고 송악으로 오는 도중에 다지홀벌판에서 잠시 머물러 사냥경기를 하였었다. 메돼지를 몰아잡기내기였는데 네 형제가(왕건을 포함해서) 똑같이 한마리씩 잡은터라 승부를 가르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때 머리로 기러기떼가 날아가는것을 본 왕건이 기러기를 쏘아 떨구자고 제기했다. 왕건은 손수 어느 기러기를 쏘라고 일일이 짚어주었다. 그러면서 몸통을 맞히지 말고 오른쪽날개를 맞히라고 하였다.

차례로 화살을 날렸는데 오른쪽날개를 어김없이 맞힌것은 승겸뿐이었다.

왕건이 이를 치하하여 승겸에게 활을 쏘 그곳 땅을 상으로 하사했다. 300결(1결은 알곡으로 100집정도) 되는 땅이었다.

그날 술희가 희떠운 룡담을 한마디 하였었다.

《능산형님, 혼자서 상탕다고 으시대지 마소. 내 이후에 형님보다 더 많은 땅을 타는것을 보소. 거기에다 이 박술희가 소왕국을 세우고 형님을 호령할테요.》

그러자 승겸이 정색해서 그 말을 바로잡아주었다.

《막내야, 나보다 더 많은 땅을 타겠다는것은 반대없다마는 소왕국을 세우겠다는건 웬 흰소리냐?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원 형님도…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우?》

《롱담이라도 그렇지, 남이 들었다간 당장에 역모죄를 씌우자고 할 소리가 아니냐?》

《딴은 그렇군요. 이 더퍼리가 생각없이 그만…》

술희는 목덜미까지 붉어지며 얼핏 왕건을 스쳐보았다.

그 모양이 무안한지라 금필이 한마디 하였다.

《술희가 생각없이 말한것일테니 그쫘해듭시다. 하지만 술희야, 명심해라. 우리 형제는 권력 같은건 티끌만큼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 폐하를 모시다 죽는것이다.》

《더 이를데없는 말씀이오이다.》

모두가 수긍했다.

왕건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척 그냥 웃어넘기였다.

그날 말한바 그대로 금필에겐 정말로 권력욕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화를 입는 단서로 되고있는줄을 금필은 모르고있었다.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권모술수에 능하여 자기를 잘 감추는 법이다. 그들은 늘쌍 상전에게 곱게 보이기 위해 재간껏 술수를 꾸며댄다.

대체로 상전은 이에 넘어가기마련인데 사람의 마음이라는것이 곱게 노는자에게 쏠리는것이 상례이기때문이다.

사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숨길줄 모르고 처세술이 약한것으로 하여 흔히 상전의 노여움을 사기가 일쑤이다. 군자는 이를 옹계 가려야 하나 빛나갈 때가 많은것이니 금필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충신이 모함을 당하는 일은 고금에 있는 폐상사이다. 충신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권력에 얼마간은 눈을 돌려야 한다는것을 아는 데는 시간이 요구된다.

금필은 이 리치를 귀양이 끝나고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것도 남의 귀뜸을 받고서야…

어기영 치기영...

어그자 지그자...

먼바로에서 목도군들의 먹임소리가 들려왔다.

바다가모래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몽금의 포구에 금모래 노을고

구미의 물넉에 고기떼 놀은다

에루화 데루화 춤추며 놀은다

누군가가 구성지게 한소리 뽑았다.

금필은 느긋한 미소를 띠운채 노래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기서는 지금 배무이가 한창이었다.

물넉에선 방금 배로 날라온 통나무들이 목도군들에 의해 부러지고있었다.

그옆 모래불에서는 각목을 다듬느라 목수들이 열심이었다.

도끼질하는 사람, 자귀질을 하는 사람, 톱질을 하는 사람, 먹줄을 치는 사람, 송진을 끓이는 사람 제각기 흥이 나서 제 일에 몰두하고있었다.

일판은 금필에 의해서 벌려진것이였다.

봄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금필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간 쌓이고 겹치였던 잡념도 동시에 털어버렸다.

이려고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이든 일을 하자,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한 금필이었다. 달리는 될수 없는 금필이었던것이다.

꼭도에서 북으로 곧추 배길을 잡으면 백리가 채 되지 않아서 물이나진다. 몽금포였다.

날이 맑을 때면 수평선너머로 가물가물 보이는 땅이였다. 그곳에서

필요한것들을 날라들이었다.

금필은 꼭도에 사는 섬사람들과 쉬이 마음을 맞출수 있었다. 명성이 자자한 고려의 대장수가 저들이 사는 섬에 와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놀랐었다.

이들이 금필을 알게 된것은 술희가 섬에 보낸 총각애를 통해서였다.

금필이 떠나간지 얼마 안되어 술희가 보낸 총각아이가 섬에 나타났다.

군사로 썬달라고 송악도성에 찾아와 졸라대기에 나이가 어리다며 돌려보냈더니 이번에는 술희네 집 담을 넘어들어와서까지 졸라댔다.

부모를 여의고 떠돌이를 하다 예까지 왔다는것이였다.

술희는 소시적 자기 처지와 비슷한데 인정이 통해 그를 집에서 살도록 했다.

달무는 무척 똑똑하였다. 실은 금필장수를 찾아가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왔다면서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 룡악산 절터에서 금필과 보름나마 무예를 닦은 일이 있다고 하였다. 이후로 아버지는 경당에 눌러앉아 제자들을 키우면서 금필의 성장을 제일처럼 자랑해왔다는것이였다. 병석에서 금필의 귀양소식을 듣고 송악에 가서 행처를 알아서 찾아가 그의 시중을 들면서 잘 지켜주라고 부탁했다는것이다. 이 나라의 대들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면서, 술희는 크게 자책하고 총각애 아버지의 부탁대로 하였다.

머칠후 달무는 술희가 가르쳐준대로 은밀히 금필을 찾아왔다. 호위병의 임무를 맡은것이였다.

달무는 우선 섬의 좌상로인을 금필에게 안내했다. 로인의 주선으로 금필은 섬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겨울을 무사히 났다.

인가가 쉼이 넘는 섬마을사람들은 집집마다 금필에게 정성을 다 하면서 콩이나 보리 같은 자작 심은 낱알들을 아낌없이 날라왔다.

섬사람들은 농사절반, 고기잡이절반으로 생계를 잇고있었다.

농사가 잘되지 않아도 걱정은 없었다. 바다를 뜯어먹으면 되는것이였다.

섬주변 바다에는 어류가 다양했다.

조기, 칼치, 오징어, 가오리따위들은 때만 맞으면 눈을 감고서도 퍼담아낼 정도인데다 갈게, 참게, 꽃게, 농게 등 계만 해도 수십종이 넘었다. 달밤에는 온갖 게들이 집토방을 넘어들어와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정도였다.

섬에서는 제 손을 놀려 거둔것은 고스란히 제것이 되느니라 인심도 과히 박하지 않았다.

금필은 섬사람들과 어울리면서부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으며 이들과 더불어 집집의 대소사도 참네하고 나라일도 걱정하였다.

날이 풀리자 이들과 함께 병선을 못기 시작하였으며 마을의 장정들에게 조련도 줄 계획이었다.

며칠전에는 몽금포에서 백여리 더 올라가있는 문화현에 사람을 파하였다. 병선건조에 필요한것들가운데 제일 요긴한것이 쇠붙이인데 가까운 물에서 구해들이는것만으로는 충당이 되지 않기때문이었다.

겸해서 류달의 안부도 궁금했던것이다. 그가 금필이 자기의 부탁대로 식렴과 손발을 맞춰 서북방방비에 필요한 지원을 잘 감당해주는지 알고싶었다.

금필은 식렴이 자기를 밀어내치는데 적지 않게 뒤조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큰 노여움없이 삭이고말았다. 이랬든저랬든 식렴은 일꾼이고 왕건의 믿음직한 보호자였던것이다. 임금의 4촌동생이라서 이렇다할 공직도 차레지지 않았지만 그는 왕건을 진심으로 힘자라는것 받들고있었다. 그의 완력이 가끔 가다 도를 넘어 지방호족들의 의견을 야기시키는 때가 있군 하지만 어쨌든 그는 일을 하자는 사람이였다. 자나깨나 고구려를 뒤이은 고려의 부흥만을 바라는 사람이였다. 이런 식렴이므로 금필은 정말이지 그가 밋지 않았으며 이런 식렴이를 류달이 잘 맞추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것이였다.

금필은 자기의 귀양살이소문이 류달의 귀에도 들어갔으리라 짐작했다. 귀양지가 이곳 꼭도라는것을 알고 언제든 달려올것으로 믿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그가 매사에 조심하는편인지라 귀양살이하는 죄인

과는 접촉을 말아야 한다는 나라의 법도쯤은 모르지 않을것이므로 감히 찾아올 용단까지는 내리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금필은 류달에게 쇠붙이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배무이에 쓸 고정쇠못들과 병쟁기를 만들 버리쇠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미구에 곡도와 이 주변 해안지대 장정들을 모두 군사로 동원할수 있게 준비 해두려는것이였다.

《나으리 나오셨소이까.》

금필은 대목으로 추천된 중늬은이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는 소리에 상념에서 깨여났다.

《일을 많이도 축냈소이다. 좀 쉬고들 하시지요.》

《그렇잖아도 쉬려고 했소이다, 나으리.》

대목은 흥겹게 응수하더니 손을 털며 소리쳤다.

《좀 쉬고들 하세. 다들 여기 와서 목이나 추기세나.》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술동이며 목함지들이 들려나왔다.

술바리가 오가고 오징어안주가 잇달았다. 누르끼레한 빛이 도는 걸쭉한 탁배기였고 검붉은 빛같이 도는 오징어통찜이였다.

찜오징어보다 생오징어를 담은 함지들이 먼저 바닥났다. 바다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 이곳 사람들도 생것을 더 잘하였다.

(술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한함지 잘 축냈을텐데...)

금필은 생오징어를 보자 술희를 생각했다.

《나으리도 어서 들어보소이다. 어제 밤참에 건진것이여서 물이 좋소이다.》

금필이 생오징어를 들여다보고만 있는것을 띄여본 대목늬은이가 거듭 권해왔다.

《고맙소이다.》

금필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오징어를 들고 한입 베어물었다. 달작지근하면서도 비릿한 오징어맛이 혀끝에 닿았다.

(술희 이녀석이 폐하를 모시는 일에 별다른 일은 없는지 모르겠다.)

금필은 왕건을 호위하는 술희의 중임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걱정되

였다. 왕건을 노리는 후백제의 자객들이 잠을 잘리 만무하였기때문이었다.

술희는 술을 많이 하는것이 흠이었다. 단숨에 한동이를 비우고 제격 코를 고는것까지는 좋은데 늦잠을 자는것이 문제였다.

술희는 조중석으로 술사발을 드는것은 내놓고도 자기 전엔 술 한동이를 꼭 비우고서야 눈을 붙이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다. 한사발이 아니라 한동이였다. 새벽에 일어나기는 코집이 틀린 버릇이었다.

하기에 내전의 새벽순찰은 언제나 복지겸의 몫이었다.

금필은 이것이 늘 불만이어서 술희에게 찍하면 지청구를 하였었다. 하지만 왕건은 언제 보나 술희편이었다. 왕건이 이런 술희를 노여워하지 않으니 누가 말해도 귀등으로 흘렸다. 남을 헐뜯는데 이끌이 난 간신들이 이것은 왜 거들지 않는지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이란 얼마만큼은 흠이 있어야 편안하게 보이는법이오이다.》

언젠가 최지몽이 한 말이었다. 그때 지몽은 술희의 녀자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말을 하였었다. 찍하면 사람 웃기는짓을 잘하는 술희는 내인을 취하는데서도 양천대소할 일화를 남기였었다. 흠투성이 술희의 일단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금필의 부여공략을 도우러 왕건이 출전했다가 돌아갈 때 술희도 함께 동행하였었는데 그때 왕건은 운주고을에 들려 고을두령을 포섭하느라 하루밤 묵어가게 되었다. 묵어가게 된 까닭인즉은 고을두령의 딸을 왕건이 취하게 된때문이었다. 그날 낮에 두령은 새빠지게도 왕건에게 사냥경기를 제의했다. 조상대대로 세습해오던 제 령지를 그냥은 마진국에 바칠수 없다면서 사냥경기를 하여 왕건이 이겨야만 완전 항복을 하겠노라고 했다. 노는 모양이 재미있는지라 왕건은 쾌히 응하였는데 해보나마나 사냥은 왕건이 이기는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자 두령은 이번엔 복속의 뜻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제 딸을 거두어달라고 매달렸다. 왕건이 이를 받아들여 하루밤 지체하였던것이다. 문제로 되는것은 이 두령에게 딸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 둘째딸을 술희가 어떻게 흐물떡해치웠는가 하는 이야기였다. 왕건이 첫째와 함께

여사여사하게 밤을 지낼 때 심사가 울적해진 술희는 두령을 꼬드켜 술겨루기를 걸었다. 제 딸을 왕건에게 안겨준 흐뭇한 기분에 등 떠서 이밤을 어떻게 보내나 하고 궁싯거리던 두령은 마침이다 하고 술희와 마주앉아 술동이를 비우기 시작했다. 그러는중에 그는 술희를 또 탐내기 시작했다. 이 텃석부리도 왕건의 부장이니 여간내기장수가 아니렸다, 박달목침같은 다부진 체구에 털부숭이얼굴이며 범발통같은 저손을 보지, 얼마나 믿음직한 손탁이냐, 이런 사내는 좀해서 맞다들기 힘들다, 거저 놓아보내긴 아까운 놈이다, 생각이 이에 이른 두령은 이왕지사 만이를 내놓은바엔 둘째도 싹 털어버리고말자고 결심했다. 하여 그는 지면 둘째를 술희에게 주겠노라 장담했다. 주량으로 말할진대 술희를 당할자가 어디 있으랴. 당장에 둘째는 술희 차지가 되었다. 그렇잖아도 제 언니만 뽕을 따고왔은 이밤이라 눈물이 가랑해서 독수공방하고있던 둘째는 어미품에 병아리들듯 순순히 술희품에 들어버렸다. 이 일은 왕건외엔 누구도 모르고있었는데 왕건이 왕위에 오른 뒤 언니(홍복원부인)를 송악으로 부르면서 동생도 함께 올라와 술희와 백년해로를 하라 이르는통에 제 형제들에게 들장났다.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반겨나올줄 알았던 술희가 도리질을 하고 앉은것이였다. 당황해난것은 금필이와 송겸이였다. 이애가 무엄해도 분수가 있지 형님의 분부를 거역하다니... 금필은 송겸과 함께 술희를 다블렀다.

《왜 살지 않겠다는거냐?》

《어서 이실직고하지 못할가?》

둘이 다그어대자 두눈만 꺾뻐이며 갑자르기만 하던 술희의 입에서 왕청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러지들 말아요, 형님들. 남의 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 무슨 사정이 있느냐?》

《아, 거 뵈이냐면... 실은 내 쟁기가...》

《쟁기라니? ...》

《앵이... 내 아래것이 그만... 까닭없이 미물이 되어버려 그러는거요.》

《뭘라구? … 그것이 미물이 되었다?! …》

《너 이놈!》

승겸이 술희의 멱살을 움켜쥐고 다그어댔다.

《네가 지난해 형님께서 고을부를 평정하라 내려보냈을 때(고을부 일부 세력들이 짜고서 고을두령을 반대하여 소요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후백제에 가붙으려다가 제지되었다.) 그곳 두령의 딸을 어찌했다 하였는지? 그때는 두꺼비 파리삼키듯 잘도 해치운 네놈의 그것이 지금에 와서 미물이 되었다?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정말이와요. 실은 그때 그날 밤부터…》

《흰소리말아. 그날 밤은 뭐 네놈 쟁기에 귀신이 들린 밤이었더냐?》

《내 말을 들어보옵소. 내 그날 밤 취중에 혼이 나가 그러하였거니와…》

《취중이라구? 너는 취할수록 정신은 더 맑아지는 놈 아니냐?》

《정신이 너무 맑아지여 그랬던가봐요. 그때 내 그 짓거리를 막하려고 하는 때인데 문득 운주의 그 녀인 얼굴이 떠오르는게 아니겠어요? 그 즉시에 내 밑의것이 그만 누에번데기모양으로 쫓아들더라고요. 그때부턴 그것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않는구만요.》

《뭘라구?! 와핫하하…》

창황중에도 들은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수 없었다.

《까무러치겠구나. 오라질 놈! 네가 운주에서 이미 녀자를 보고서도 또 그것을 하니 하늘이 벌을 내렸고나, 하늘이…》

승겸이 탄식을 하는데 금필이 안타까운듯 또 다그어댔다.

《삼강오륜이라는것을 뜯금으로 외우는 네가 눈 한번 깜빡않고 그것을 해?》

《그런건 옛사먹은지 오랜 놈이로구나. 이봐, 술희!》

《네에?》

《그래 네가 뜯금으로 외우는 거기에 남편과 안해사이에 어찌해야 한다고 했더냐?》

《둘사이에 공경하고 복종하는 분별이 명백해야 한다 하였소이다.》

《그게 안해만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안해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냐?》

《그건 아니오나… 아, 내가 지금 부부간을 이룬 사람이요?》

《잘 나온다. 그러면 봉우지간에 지켜야 하는 도리는 알고있냐?》

《내가 형님들하구 신의를 어긴 사람이요?》

《이놈이?! 너 우리가 매소홀에서 형제를 맺을 때 약조한 계를중의 한가지를 좀 물어보자. 사내대장부로서 금해야 할것이 무엇이라 했더라?》

《첫째로는 허뿌리를…》

《옳다! 말 한마디에 평생 한을 남기고 원썩지간이 되는수가 있느니라. 확실히 혀는 함부로 놀리는게 아니다. 그럼 둘째!》

《손뿌리올시다.》

《손가락을 잘 놀리라는 소리렸다. 도적질따위 부정한것은 절대로 말아야 하는거다. 다음 셋째!》

《?! …》

《셋째!》

《아, 거 뵈어나면… 아래것을 함부로 놀려서는 아니 된다 하였구만요.》

《그걸 아는 놈이 그것을 해?! …》

금필은 속이 상해 방바닥을 쳤다.

《글쎄, 고을부에서 있는 일은 내 잘못하였소. 불기를 쳐도 할 말이 없소. 하지만…》

《하지만 뭐냐?》

《흥시도 따먹지 못한 그날후부턴…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내 쟁기가 정말이지 판눈을 판적이 없다구요. 판눈을 팔수도 없게 되었구요.》

술희는 불이 부어 두덜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까지 운주의 그 녀자를 잊은줄 아시오? 하지만 생각들

해보시오, 형님들! 상대가 형님의 아니, 폐하의 처제이신데... 구실을 못하는 나와 백년가약 맺었다가 그 후환을 어찌 감당하겠소이까. 폐하앞에 내 뭐가 되겠냐 말이요. 미치겠구나, 하늘도 야속하지. 운주의 그 녀자와만 만나라고 하면서도 병신을 만들어 골탕먹이는 까닭은 또 뭘니까요.》

술희는 주먹으로 제 뒤통수를 치며 훌쩍거렸다.

《됐다. 이젠 옆지른 물인데 울고만 있으면 된다더냐. 다시 담을 궁냥을 해야지.》

금필이 위로하고 나섰다. 술희가 도리질을 하는 이유를 안 이상에는 대책을 세우는게 급했던것이다.

《너는 우리보다도 식자를 먼저 깨친 놈인데 그래... 이런 경우에 어찌해야 한다는것을 모른단 말이나?!》

승겸이 넋지시 찌르자 술희가 기다렸던듯 얼른 대답하였다.

《그동안에 품을 넣어 슬그머니 얻어둔 비방이 하나 있긴 하오나...》

《그게 뭐냐?》

금필과 승겸은 동시에 물었다.

《의원의 말이 나는 지금 그 운주녀인의 음기에 밀려 내 양기가 주눅들어 그러하니 양기를 우선 돋구어야 한다고 했수다. 양기를 돋구는데는 물닭 수컷의 변두가 제격이라니 그걸 좀 구해주시오이다.》

《저런 놈을 봤나?! 목마른 놈 우물 판다더니 저것이 제 궁냥은 하고있었구나!》

승겸은 반색을 하고 금필은 안도의 숨부터 내쉬었다.

《그렇다면 일찌감치 약을 쓸것이지 왜 여직 그러고앉아 병신타령이나?》

《그 약재는 형제들이 구해주는것이여야 한다더군요. 제손으로 구한건 효험이 없다구요.》

《그 의원이 약을 써도 형들앞에 토설을 하고 볼기를 맞은 다음에 쓰라고 그런 비방을 내렸구나. 여하튼간에 볼기는 맞아야겠다.》

아닌게아니라 이 기회에 버릇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한 금필은 승겸

과 눈맞춤을 하고서 두말없이 술희의 영치를 꺼제끼고 토방밑에 있던 짜리비자루 한개를 방에 들여왔다. 비자루는 고스란히 죽살나버렸다.

둘은 술희에게서 다시는 헛눈을 팔지 않겠다는 다짐을 열번은 받아내고서야 손을 털었다.

그 다음 둘은 뛰어다니며 그날중으로 물닭을 수컷으로 다섯마리나 잡아다 주었다.

술희는 물닭 다섯마리를 번두는 물론 몸통까지 통채로 삼켜버렸다. 그리고는 득의양양하여 삼일후에 혼사를 가볍게 치르어버렸다.

가끔가다 흠을 남겨놓는 이런 술희를 지몽은 타박하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차라리 흠이 좀 있는게 낫지 너무 흠이 없어도 좋지 않다는 식이었다.

(세상리치에 닿지 않는 소리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몽공이…)

금필은 지몽의 그 말뜻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기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면 금필이 아닌것이다.

《우린 그만 일어나겠소이다.》

대목늬은이의 말에 금필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자, 또 한번 땀흘려보세.》

대목늬은이가 소리치자 모두 응수하며 일자리로 흩어져갔다.

자리를 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금필은 속으로 되뇌었다.

(사람이란 정직하고 대가 발라야 한다. 그러자면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하구말구.)

금필은 흥하니 일어나 일판에 끼여들었다. 시원히 도끼질이라도 하고싶었던것이다.

《아버님!》

금필은 자기를 찾는 처녀의 맑은 목소리에 휘두르던 도끼질을 멈추었다.

《너 왔느냐!》

《너무 무리하지 마시와요. 이 땀 흐르는걸 봐…》

금필이 허리를 펴는 사이 처녀는 어느새 사뿐히 다가와 자기의 흰

수건으로 이마에 내뺨 땀을 씻어주었다.

금필은 처녀의 말큰말큰한 손이 얼굴에 닿자 흠칫 몸을 떨었다.

《일없다.》

《아버지도 참...》

처녀는 금필이 어색해하는양을 보고는 그만 저도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숙이었다.

《참, 매혼련은 잘되냐? 달무는 어디 두고 너만 이리 왔느냐?》

《저...》

처녀가 손에 쥔 수건만 꼬깃꼬깃 비틀고있는 모양을 이윽히 바라보던 금필은 뭔가 짐작되는바가 있어 다시금 되물었다.

《달무 그녀석이 아직도 너를 멀리하는게 아니냐?》

그 말에 처녀는 머리를 살래살래 저었다.

《그런것은 아니오나...》

《그럼, 뭐냐?》

처녀는 몸을 웅그리며 바재이다가 한숨을 호 내쉬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금필이 저이기 상심하는 모양이 안스러운지 처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섬에 웬 너인이 하나 들어왔소이다. 갈매나루로 들어왔사온데...》

《그런데...》

《대장수님을 찾아왔다 하오이다.》

《나를?》

《대장수님을... 뵈시련다 하오이다.》

처녀의 얼굴에 서늘한 그늘이 한껏 비끼였다.

《부여성에서 왔다고 하옵는데... 대장수님 부인의 친척별이 된다면서... 섬에 닿자마자 쓰러진것을 달무와 함께 거두어주고 왔소이다.》

《뉘라고?!》

금필은 아연해서 멀거니 처녀만 바라보며 서있었다.

처녀는 슬며시 몸을 돌리더니 이내 종종걸음을 놓았다.

《애, 아람아! 넘어질라.》

이윽도록 멀어져가는 처녀를 응시한채 금필은 그만 한숨을 후 내쉬었다.

이럴수가 있나...

아람아! 한적한 이 외지에 와있는 금필에게 새처럼 날아와 안긴 처녀다. 전혀 뜻밖에 나타나 금필을 아연케 하였던 저 처녀, 금필은 자기 생에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다.

금필이 귀양살이를 한다는 소문이 사방 퍼져 나라안팎이 어지간히 뒤숭숭했던 모양이었다. 금필은 군사용무를 빗대고 얼핏 자기를 찾아온 말을 되게 꾸짖어 쫓아보냈다. 예로부터 귀양살이하는 사람을 동정하는자는 엄하게 벌하는례를 모르는가고 다불렀다. 다시한번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은 그가 혈분이든 친구이든 가차없이 조정에 알려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제 아들을 조정에 상소하여 강등 처벌을 받게 한것은 물론이었다. 그런데 어느날인가 아람이란 이 처녀가 별안간 찾아왔다. 리유인즉 금필장수의 내실이 되련다는것이였다. 금필은 기절초풍할 지경이 되였다. 쇠고개를 바라보는 자기에게 이제 겨우 스물이나 닿은듯만듯싶은 애어린 꽃송이가 거침없이 몸을 맡기겠다고 나선것이였다.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음절반, 육절반 하는 금필에게 포랑포랑 되뇌이는 처녀의 말이 또한 걸작이였다.

《황소가 밭을 갈고 인재가 나라를 받드오이다. 저는 거처할 곳을 찾는 걸인은 아니옵고 더우기 색녀는 아니옵나이다. 먼 후날에라도 그때 사람들속엔 인걸을 알아보는이가 그렇게도 없었는가고 비웃음을 살가 넘려되여 소녀 외람된줄 알면서도 청을 드리는데이오이다.

부디 소녀의 진정을 받아주소서.》

처녀는 평양 대성산성너머 광법사에서 운영하는 경당의 수련생이였다. 부모를 여의고 몸을 의지하러 찾아간것이 글귀를 깨치고 무술을 갖추어 이제는 세상을 볼줄 알고 제 주장을 펼줄 아는 수준에 이른 처녀무사가 되였다. 경당 도사의 승인까지 받고 찾아왔다고 하였다. 그곳 도사도 금필과는 면목이 있는 사이였다. 그 역시 젊은 시절에

금필과 무술을 함께 익힌적이 있었던것이다.

처녀는 금필이 귀양에서 풀려날 때까지만 한지붕아래 있겠다고 거듭거듭 우기였다. 그날 저녁상까지 차려올리고나서도 처녀는 물러나지 않고 버티었다. 난감해진 금필은 먼길에 피로할테니 그럼 쉬여라 하고는 제가 밖으로 나와 토방마루에서 밤을 새였다. 조금 지나보니 처녀도 밖에 나와 쪼그리고 앉아 밤샘을 하고있는게 아닌가. 이런 일을 보았나... 혼곤히 잠든 처녀를 넋없이 내려다보던 금필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내다 썩워주었다. 고집도 이만저만이 아닌 애였다. 세상에 이런 처녀도 있는가. 그의 진정이 눈물겹도록 고마웠지만 금필은 정말이지 그것만은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귀양살이하는 처지때문만도 아니었다. 제 딸 같은 나이의 처녀를... 정신이 나가지 않고야 어떻게...

뜬눈으로 밤을 새고나서 날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 금필은 처녀를 조심조심 흔들었다.

《아가, 그만 일어나렴. 조반을 지어야지?》

《그러니 나리께선 응하신단 말씀이시오이까?!》

처녀는 눈을 감은채로 물었다. 그도 자지 않고있었던것이다.

《딸이라 하였소이까?》

《그렇구나. 내... 머리숙여 절을 한다. 세상에 너같이 고마운 애가 어디 있겠니. 그래서 더 달리할수 없어 내 자식으로 삼은거다. 너의 그 마음을 이 가슴에 새겨두겠다. 네가 바라는바를 내 안다. 깨끗한 마음 변함이 없으리니 믿어다오. 내 아버지구실을 꼭 하마! 내 딸아!》

금필은 목이 메여올라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처녀는 소곳이 숙였던 머리를 살며시 들었다. 창백해진 얼굴의 호수같이 그윽한 눈길이 금필의 얼굴을 더듬고있었다.

이윽해서 처녀의 앵두입술이 열리었다.

《아버지! ...》

《오냐! 내 딸아! ...》

처녀는 스스럼없이 금필의 가슴에 얼굴을 대었다.

그 순간 금필의 눈가에 저도 모르게 맑은것이 맺히었다.

살며시 고개를 들어 금필을 마주보는 처녀의 고운 얼굴! 금필의 흐려지는 망막속에 발그레하게 물들여져 웃고있는 처녀의 정겨운 그 모습이 새겨지고있었다.

금필은 양팔 아람을 달무와 짝을 무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아람이 보다 네댓살아래인 달무가 길길이 뛰며 등을 돌렸다. 아버지의 부탁을 저버리고 처녀꿈무니나 붙어다닐수 없다는것이였다. 둘이 힘을 모아서 금필장수를 보살피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이 없다고 섬사람 모두가 추기고 금필이 성을 내서야 겨우 약조가 되였다. 금필장수를 위한 일이라면 써도 달게 넘겨야 한다고 주변에서 못을 박아 겨우 약혼이 되었는데 둘사이가 서먹서먹한것이 영 안심치 않았다.

저애들을 어떻게 하나, 타이르는것도 정도이고 더우기 매로 쳐서 되는 일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일을 당해본적이 없으니...

생각을 굴리던 금필은 달무와 아람이 매를 잘 다룬다는데 생각이 미쳐 매를 가지고 통신연락을 할수 있게 련마할 과제를 주었다. 둘다 매를 다루는 재간을 적잖게 익히터라 전장에서 이를 활용할 공냥을 한것이였다. 한 사나흘 오손도손 재미있게 매를 길들이는데 정신을 쏟는가 했는데 그만에야 또 한명의 녀인의 출현으로 아람의 마음이 충격을 받은듯싶었다.

이러나저러나간에 자기를 시중들쫘다며 새롭게 나타난 녀인이 금필에겐 문제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그날 저녁 금필은 서둘러 녀인을 만나보지 않을수 없었다.

녀인은 금필이 거처하는 집건너 아람이와 달무가 든 초막에 누워있었다. 스물댓 되였을가. 아람이보다는 퍼그나 나이가 앞서 보였다. 바다바람에 신고를 적잖게 한것 같았다. 온몸이 불덩이같이 달아있고 신열에 헛소리까지 치고있었다.

금필은 사정은 어찌되었든 구완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조언을 주었다.

녀인은 다음날 아침에야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는 금필

을 찾았다. 금필대장수가 분명한가고 거듭 되묻더니 몸에 지녔던 보
집에서 비둘기를 찾아달라 하고는 그중 한마리를 골라잡아 날려달라
고 부탁했다. 자기가 섬에 무사히 닿아서 금필대장수를 만났다는것
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금필은 너인의 부탁대로 하게 하였다.

너인은 비둘기가 날아가는것을 보고서야 다시금 잠에 들었다. 참
영문을 알수 없는 너인이었다.

금필은 달무에게 말했다.

《아무됐거나 사람은 살리고 봐야겠구나. 저간의 사정일랑은 그 다
음에 알아보자꾸나.》

금필은 저를 찾아온 사람인데는 도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너인은 다음날에야 정신을 차렸다.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면서도 금
필을 돌본다며 부득부득 자리를 개는것을 겨우 밀막아 눕혀놓았다.

금필은 난감했다. 이런 우연한 일치도 있는가. 아람이와 똑같이 마
음먹은 너인이 또 나타나다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달무가 속살거리었다.

《아버님, 저 랑자가 아무래도 수상쩍소이다. 비둘기까지 날리면서
죽기로 노는품이 속에 무언가 품고있는게 분명하오이다.》

아람이도 같은 소리를 했다.

《대장수나리! 경계해야 할가보오이다.》

아람은 너인이 나타난 다음날부터 금필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일종의 시샘을 숨기지 않고있는 것이었다.

《그렇기야 하라만 알아는 보자꾸나.》

금필은 부담스럽기 그지없는 일에 또 부탁친지라 자기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다.

너인의 정체는 인차 드러났다. 달무가 너인이 가지고 온 다른 비둘
기를 몰래 가져다 살펴보다가 비둘기발목에 매여져있는 붉은색천조박
을 단서로 잡아 문초를 하여 토설을 받아낸 것이었다. 너인은 후백제
전환의 모사 간무가 들여보낸 간자였다. 이전에 왕건의 집을 기습했

다가 죽은 자객의 녀동생으로 오랍의 원수를 갚는다며 간무의 청을 기꺼이 들어 자진해서 들어온 녀인이었다. 고려의 맹장 유금필이 정말로 꼭도에 귀양가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임무였다. 그가 날린 비둘기에 매인 파란색천쪼박이 그 표식이라 하였다. 두번째 비둘기는 금필이 귀양에서 풀려날 때 날리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금필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후백제가 잠을 자지 않고있었으며 무언가 큰 작당을 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금필은 이 사실을 왕건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달무와 아람을 서둘러 떠나보내었다. 술희에게 찾아가 날날이 전한 다음 그길로 후백제땅 완산주도성으로 들어가라고 일렀다. 재간껏 그곳의 동향을 내탐해서 술희에게 알리라고, 좋기는 후백제모사 간무의 거처로 스며들라고 당부했다.

그들을 떠나보내기 전날 금필은 이들을 위해 소박한 잔치상을 차려 주었다. 아버지의 자격으로 두 젊은이의 백년해로를 축복해준것이였다.

다음날 달무와 아람은 눈물을 머금고 금필과 작별했다.

금필은 간무의 간자녀인을 죽이자는 섬사람들의 제의를 밀막았다. 그는 자기의 천성 그대로 녀인에게 손을 대지 않고 몸을 추세워주기까지 하였다. 녀인은 금필의 지성에 감복하여 무릎을 꿇었다. 금필은 녀인을 이후에 간무에게 보내주려고 작정했었다. 승려인 간무가 몸종으로 데리고 안방에도 함께 드는 사이로 지냈다는것을 안 다음 내린 결심이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현될수 없었다. 이후에 간무의 운명이 달리되었기때문이였다. ...

금필은 부지런히 일을 밀고나갔다. 하지만 금필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위구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후백제가 조만간에 엉큼한짓을 하리라는 위구심이였다. 날이 갈수록 불안은 더 커갔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와서 살아 그런지는 몰라도 금필은 후백제가 꼭 바다로 해서 일을 칠것 같은 예감으로 가슴이 조여들었다.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왕에 대비를 할바 하고는 크게 해야 한다. 그것도 빠른 시일안에...

때마침 류달에게서 소식이 왔다. 부포(강령)에서 만나자는 소식이

였다. 그곳 해안가에 구리쇠밭이 있었다. 금필은 서둘러 떠나갔다.

류달은 그사이 부포 구리밭도 넘겨받아 크게 확장하려고 걸음을 하고있었다.

《자고로 벼슬살이란 살얼음판을 건느는 나그네인생길이라 했소. 찍하면 얼음이 깨져 찬물에 발을 적셔야 하는 후회막심한 길이지.》

류달은 반가움보다는 측은한 기색만 가득한 얼굴로 금필을 맞았다.

《내 벼슬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 비꼬는 말일랑 접어두게.》

《십지가 끈은 사람들이 골탕먹는것이 어치구니없어 해보는 소리요.》

《대장부인생길에 이쯤한 일이야 레상사지. 자, 어서 본론에 들어갑세. 그래 내가 전번 편지에 부탁한건 다해놓았겠지?》

《원, 사람두...》

류달은 혀를 차며 종이말이를 펼쳤다.

《자, 병선건조에 쓸 쇠붙이가 2만근, 창과 칼을 버리는데 1만근, 이걸 해놓았소. 낫활촉을 만드는데 드는 황동구리쇠 2천근이 지금 채 안되었는데... 그것도 닷새안엔 될수 있소. 그런데 활촉은 꼭 낫으로 만든거라야 되우?》

《불화살을 만들어야 하니 그러지. 나무로는 불화살이 적합치 않소. 바다싸움에선 불화살이 능률을 낸다오.》

《아, 그렇군!》

《은밀히 해주시오. 건훤의 축수가 이쪽으로 뻗고있소.》

《알겠소. 나라를 위하는 그대의 충의지심에 내 감복하게 되오. 닷새안으로 어떻게든 전량 보내주리다.》

《고맙소, 류달형!》

금필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귀양살이하는 사람은 귀양지에서 두문불출하고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금필은 개의치 않고 일을 벌려나갔다. 이후에 벌을 받으리라, 지금은 가만있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으로 금필은 밤낮으로 일을 밀고나갔다.